

김선동 회장, 사우디 화학산업 협력

경제협력위 위원장으로 대외활동 재개 ...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나 내부 경영에만 주력해 오던 김선동 S-Oil 회장이 최근 대외활동을 재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한국-사우디 경제협력위원회 한국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선동 회장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중소기업 투자사절단을 파견키로 했다.

S-Oil은 10월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합작을 원하는 정보통신, 석유화학, 건설자재, 의료기기 분야의 국내 유망 중소기업 20여사를 선정해 현지에 보낼 예정이다.

1998년부터 한국-사우디 경제협력위원회를 이끌어온 김선동 회장은 사우디의 오일머니와 기술력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 간 합작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절단에 여행경비를 대주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선동 회장은 세계 석유시장의 슈퍼파워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알리 알 누아이미 사우디 석유 장관과 남다른 친분관계를 갖고 있어 이번 투자사절단 파견에서도 사우디 정부 측의 협력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으로 풀려나 칩거하다 다시 대외활동에 나선 것은 김선동 회장이 제기했던 위헌심판 신청이 2003년 8월 서울지방법원에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제청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 논란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김선동 회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Chemical Journal 2003/10/09>